

포스코인터 통합법인 출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발돋움”

에너지 흡수합병, 사명은 그대로
대표이사에 정탁 부회장 선임
친환경 에너지 전문 영역 확대
경영 안정성 증대, 신사업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통합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흡수합병에 따라 사명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유지되며 통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총에서 정탁 부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번 합병은 상사부문과 자원개발 사업에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법인은 연간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를 상회하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는 2021년 국내 기업 매출액 기준 11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룹 내에서 포스코와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신임부회장.

함께 핵심 계열사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번 합병을 통한 주요 효과는 크게 ▲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로 요약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종합상사를 넘어 에너지, 식량, 부품소재 등 종합사업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에너지부문의 강건화는 트레이딩 분야의 고도화뿐 아니라 식량, 신성장 분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현금창출능력(EBITDA)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 7000억원 대로 향상되고, 부채비율도 200%에서 160% 수준까지 축소되어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된다.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위상도 한층 강화된다. 합병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연결하게 된다.

또 신성장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커진 외형과 향상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 친환경 바이오사업 진출, 수소를 이용한 저탄소 생산·발전체계 구축 등 유망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 한 해 기존 사업의 안정성장 기초 위에서 합병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업은 산규 가스전 개발과 국내 발전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증설을 추진한다. 철강사업은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성장산업의 신수요를 적극 개발하면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그룹의 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량사업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사업은 구동계 전문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중국, 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회사 차원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그룹내 친환경사업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새 수장을 맡은 정탁 신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영업,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대우에 입사하여 대우인터내셔널 쿠알라룸푸르지사장,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을 두루 거쳤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2일 취임사에서 “핵심사업인 에너지, 철강, 식량, 친환경 미래 사업에 트레이딩 역량을 가미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며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종희 “과감한 도전·변신으로 도약 전환점 만들자”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전자 시무식 개최

신환경경영 원년 친환경 기술 육성
전 사업장 준법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

삼성전자가 비상 경영 속 도약을 다짐하며 새로운 한해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화상회의의 시스템으로 국내 전 사업장에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에는 사내 최고 기술 전문가인 ‘삼성명장’과 함께 우수 성과자인 ‘애뉴얼 어워즈’ 수상자와 가족들까지 초청해 기술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신년사는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이 공동 명의로 작성했다. 양 대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을 다해준 국내외 임직원에 감사의 전하며 말을 시작했다. 특히 위기 때마다 더 높이 도약했던 지난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한계의 벽’을 넘자고 당부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재용 회장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이어서 한 부회장은 과감한 도전과 변신으로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자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위상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경영 체질과 조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미래를 위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하자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신환경경영전략’을 본격화하는 원년을 맞아 친환경 기술을 미래 경쟁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 되도록 하자며 ESG 경영 실천 의지도 되새겼다.

한 부회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에 없는 기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품질력을 제고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임직원 여러분”이라며 “▲다양성 ▲공정 ▲포용에 기반한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준법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준법 문화 정착에 힘 쓰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이번 시무식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날 대한상공회의가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가할 예정, 이후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경영을 이어가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

‘CES 2023’ LG전자 수면케어 솔루션 ‘브리즈’ 선보여

LG전자가 신가전으로 편안한 잠자리까지 만들어준다.

LG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스마트 수면케어 솔루션 ‘브리즈(briid.zzz)’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브리즈는 ‘산들바람(Breeze)’과 같은 상쾌한 아침을 맞게 한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졌다. 수면을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수면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숙면을 돕는 기능을 한다. 사내독립기업인 슬립웨이브컴퍼니가 기획 출시했다. 전용 무선 이어셋과 앱으로 구성된다. 뇌파를 측정하고 수면케어 사운드를 들려주며,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케어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선 이어셋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무게도 한 쪽에 6g에 불과해 오래 착용해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 케이스는 UV나노 기능으로 청결하게 제품을 유지할 수도 있게 해준다.

음원도 다양하다. 양쪽 뇌에 다른 주파수를 들려줘 이를 이용해 수면을 유도하는 뇌파동조사운드와 함께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와 A SMR 등 80여개 사운드를 수록했다. 즐겨듣는 유튜브 영상 등에 뇌파동조사운드를 더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이미 개발된 뇌파동조사운드 ‘스태틱 바이노럴 비트’ 뿐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한 ‘다이내믹 바이노럴 비트’도 함께 제공한다.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변해 최적화된 주파수를 들려줄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더 나은 패턴을 제안할 수도 있다. 뇌파 감지 센서가 ‘입면 단계’와 ‘렘수면’,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수면 중 깨’ 등 단계별 수면 패턴을 정교하게 측정한다.

/김재용 기자

조원태 “올해 아시아나 인수 완수… 항공 경쟁력 갖춰야”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항공 정상화 위해 안전 가장 중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023년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산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포부를 다졌다.

조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항공업계 전체가 위축되고 우리의 활동 입지 또한 타격을 받는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강조했다.

그는 항공업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산했던 공항이 여행 수요가 늘며 다시 북적이는 모습, 드문드문 자리를 비웠던 우리 동

료들이 다시 제 자리를 채우는 반가움,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고객에게 안전한 항공사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며 회복하기도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원가부담, 불안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여행 방식 변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정보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반세기 이상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경험은 우리만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로,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

고 체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변수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해외 여행 리오프닝과 동시에 벌어질 치열한 시장경쟁에 대비해 수요 선점을 위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조 회장은 “고객의 니즈 분석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 항공여행 재개 시점,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언제 어떤 노선에 공급을 늘릴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해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시장은 회복되는데 우리의 실적과 수익성은 오히려 저조해지는 이른바 ‘수요 회복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